

한라포커스 27일 본격 시행 '제주형 통합돌봄' 어떻게?

# 전국 시행 맞춰 제주 모델 가동... 의료 연계 강화

### 제주가치돌봄·제주형 건강주치의 연계해 협업 행정시 통합돌봄 조직 신설... 재정 부담은 과제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전국 시행 방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제주형 통합돌봄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른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의 하나의 체계로 묶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국 시행을 기점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 역시 이러한 국가 정책 흐름에 맞춰 '제주형 통합돌봄'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형 통합돌봄은 기존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도는 기존 자체 사업인 '제주가치돌봄'과 '제주형 건강주치의'를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설계했다.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초기 상담과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통합 사례관리 방식이 도입된다. 이후 방문 간호, 재가 요양, 식사 지원,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

와 함께 건강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의료 서비스가 연계된다. 행정 조직도 통합돌봄 운영에 맞춰 정비된다. 제주시는 물론 서귀포시에도 통합돌봄 전담 조직이 신설돼 지역 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전담 인력 9명 확충... 재정 부담은 과제=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도는 통합 돌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총 9명의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62명)보다 많은 규모이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를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 부담 역시 현실적인 문제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 운영 비용 대부분은 지

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형 통합돌봄 예산은 국비 6억8200만원을 포함해 총 13억6400만원 규모다. 다만, 이는 제도 초기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향후 서비스 확대에 따라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정책 시행을 위한 최소 인력 수준"이라면서 "도내 노쇠 인구 규모와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인력 증원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경력직 68명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력은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우선 TF팀을 운영해 제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면서 서비스 범위와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현기자

## 공항소음 피해지역 난청 주민 보청기 지원

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난청을 겪는 공항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보청기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준은 한쪽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중등도 난청 진단자, 또는 경도 난청으로 진단받아 보청기 처방을 받은 주민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7일까지로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공항소음 민원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소범기자

## 제주도서관 '온동네 키움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서관이 올해 상반기 주중·주말 '온동네 키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주시 전농로에 있는 '늘래올래' 공간을 활용해 학교 밖 돌봄 서비스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주중 프로그램은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요일별로 그림책, 수학, 로봇, 독서 등으로 주제를 달리하는 창의 체험 활동이 준비된다. 주말 프로그램은

초등 1학년년부터 6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3학년, 4~6학년으로 시간을 나눠 진행된다. '나도 그림책 작가', '보드게임으로 만나는 동화 이야기'가 이어진다.

운영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5월 3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과정별 12명 내외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https://org.jje.go.kr/lib>)을 통해 하면 된다.

김지은기자

## 유희공간을 숲으로...

### 제주 원도심 '구석구석 숲' 오는 17일까지 대상지 공모

제주 원도심 곳곳에 주민 참여로 조성되는 도시 숲이 늘어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참여형 도시 숲 조성사업인 '구석구석 숲' 대상지 공모를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도심 내 녹지 소외 지역에 대한 녹지 확충 요구를 반영해 원도심 등 도시지역 유희공간을 활용, 생활권 녹지공간을 늘리기 위해 추진된다. 도민이 조경 전문가와 함께 숲 조성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첫 시범사업으로 원도심 동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상 지역은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삼도2동·건입동을 포함해 서귀포시 중앙동·천지동·경방동·송산동



파릇파릇 돌아난 보리 이삭 9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우회도로변 밭에 어느새 보리 이삭이 패어 봄소식을 전해 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일원이며, 최종 사업 대상지는 3곳 내외로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 주체는 마을·아파트·공동주택 등 마을 단위 공동체 및 단체다. 대상지는 향후 5년간 이용계획이

없는 유희지(사유지 포함)로, 구역 경계가 명확하고 현장 접근이 용이하며 조성 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한 뒤 전자우편(hcg1831@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제주도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전화 064-710-6456)으로 하면 된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 제주 초중고 11곳 '인공지능 중점학교'로

### 도교육청, 초등학교 3곳·고등학교 8곳 선정·운영

제주지역 초중고 11곳이 '인공지능(AI) 중점학교'로 선정됐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공지능 중점학교로 선정된 곳은 초등학교 3곳, 고등학교 8곳이다. 초등학교에는 백록초, 한림초, 서호초가, 고등학교에는 서귀포고, 제주여상, 대기고, 제주여고, 서귀포고, 제주중앙여고, 오현고, 제주제일고가 이름을 올렸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지난해까지 운영되던 'AI 정보교육 중심학교'에서 명칭을 바꿔 이어지지만, 그 내용은 차이를 보인다. 핵심은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정한 것보다 인공지능·정보교육 시수를 늘리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20시간 이상으로 정보 수업을 편성한다. 고등학교는 '정보'나 '인공지능 기초'를 필수 과

목으로 정해 운영한다. 3년 동안 매 학기 최소 1과목 이상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선정된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유형별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인공지능 이해와 활용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유형은 인공지능·정보교육 선도형과 중심형, 문화확산형이다.

도내 인공지능(AI) 중점학교 중 유일하게 선도형으로 선정된 제주제일고에선 인공지능·정보 관련 교과 시수가 확대된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미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거점학교 역할도 맡게 된다. 이외에 인공지능·정보교육 중심형 학교는 매학기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문화확산형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수축상



이유순 (푸주옥 오라점 대표)

###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

제60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푸주옥 오라점·도남점 직원일동

## 추임 재제주시 고산향우회 제35대 회장



김희종

재제주시 고산향우회 제35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제주시 고산향우회 회원 일동

## 추임 재제주시 고산향우회 제35대 회장



김희종 (본회 29회)

재제주시 고산향우회 제35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산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강경표 외 동문 일동